

조선후기 사대부 부인의 애정시 표현양상과 문학사적 의미*

— 김삼의당 애정시를 중심으로 —

한성금**

차 례

1. 서언
2. 삼의당 부부의 소통의 기반
 - 2.1. 역할에 대한 인정과 공감
 - 2.2. 지적 대화를 통한 수용과 존중
3. 삼의당 한시의 애정 표현방식과 의미
 - 3.1. 규범과 정감의 애정화답
 - 3.2. 삼의당의 애정시가 갖는 의미
4. 결어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조선후기 사대부 부인인 김삼의당의 애정시 표현양상과 문학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김삼의당 부부의 애정적 삶의 바탕에는 막힘없는 소통이 큰 역할을 했다. 그들의 소통의 기반에는 과거시험을 통한 '가문세우기'의 남편의 역할과 '남편 내조'와 '가정 꾸리기'라는 아내의 역할에 대한 서로의 인정과 공감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지적 대화를 통한 수용과 존중이 있었다. 그들은 상대가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주는 믿음의 대화가 있었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여길 때는 전고를 활용하여 치열하게 논증하는 토론의 장이 있었다. 또한 별리 상태에서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격려하고 수용하는 존중의 소통이 있었고 때로는 집 앞의 작은 자연을 보면서 감성을 교류하고 확장하는 공감의 소통이 있었다.

삼의당 한시의 애정표현 방식은 규범과 정감의 애정화답이다. 삼의당은 유교적 규범 안에 사유하려고 노력하였고 규범적 시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규범적인 삶 뒤에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자신의 아픔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2912)

** 조선대학교

과 그리움을 숨김없이 표출한 정감의 시가 있다. 이러한 삼의당의 과감한 애정표현은 사대부 부인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솔직한 여성역시를 드러냈는데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부인에 대한 애정표현을 남편도 드러냈는데 주로 수창시와 편지를 통하여 교감을 하였다. 이와 같이 삼의당의 애정시에 드러난 여성의 위치와 자존감, 애정표현의 과감성은 사대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는 일이며 남편의 부인에 대한 애정시 또한 조선 후기의 사대부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핵심어 : 애정시, 규범과 정감, 지적대화, 애정표현의 과감성

1. 서언

본고는 조선 후기의 사대부 여성인 김삼의당의 애정시를 통하여 시적 표현양상과 조선시대 사대부 여성들의 한시사에서 삼의당의 애정시는 어떤 문학사적 의미를 갖는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사대부 여성의 문학적 지향의식과 표현방법, 더 나아가 여권존중의 맥락에서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삼의당의 애정시는 여성의 자존감과 위치, 진실된 여성 정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는 가부장제의 강화로 여성의 억압과 중압감이 가중되는 시기였으며 여성의 가정 내의 역할과 존재감 등이 불리했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사대부 여성인 김삼의당(金三宜堂, 1769~1823)¹⁾은 현재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없는 당당한 목소리를 냈으며 동시에 남편으로부터 끝없는 지지와 사랑을 받았다. 따라서 그녀의 한시에는 결혼에 대한 긍정의식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 부부관계와 삶에서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삼의당의 애정시와 기타 글을 통하여 삼의당 부부의 관계와 소통, 부부에 대한 서로의 관점, 삼의당의 남편에 대한 애정표현 등을 고찰함으로써 그것의 문학사적 의

1) 삼의당 김씨는 전라도 남원의 서봉방에서 연산군 시대의 학자 濯纓 金駟孫의 후손인 金仁赫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18세 되던 해(1786)에 한 동네에 살며 생년월일이 같은 湛樂堂 하립과 결혼하였다. 그들은 근 15년을 하립의 과거 준비로 떨어져 살다가 과거를 포기하고 하립이 33세 되던 해(1801) 진안 마령으로 이주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삼의당의 문집은 2권 1책으로 1권에는 111편 253수의 시가 있는데 15수는 하립의 작품이다. 2권에는 書, 序, 祭文 등의 산문 26편이 있다. 허경진 역, 『三宜堂 金氏 詩選』, 평민사, 2008, 125쪽.

미를 찾고자 한다. 이때 삼의당의 애정시는 조선후기 사대부 부인의 열린 여성 의식의 한 국면을 살피는 데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학에서 부부의 애정은 시대를 뛰어넘어 중요한 소재이지만 조선시대 한시 문학사에서 부부의 애정을 제재로 한 작품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한시 작가의 중심에 있는 사대부가 아내와의 사랑을 드러낸 시를 쓴다는 것이 시대적 상황에서 어려웠기 때문이다. 즉 사대부는 남녀의 사랑을 문학에서 정면으로 다루지 못했고²⁾ 남성작가가 부인과의 사랑을 노래한 시는 부인의 죽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나 가능했다.³⁾ 물론 사대부 여성들이 자신의 애정 생활을 드러내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삼의당 부부는 평생 연인 같은 삶을 살았고 그녀는 남편에 대한 솔직하고 감각적인 애정시를 많이 남겼다. 삼의당의 남편에 대한 과감한 애정의식의 표현은 ‘사대부 부인’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여성의 본능을 진실하게 표출하는 여성의식의 단면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조선후기 사대부 한시 주제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부간의 애정⁴⁾을 부부가 같이 표현했다는 데 한시사에서 가치를 지닌다. 이와 같은 부부의 애정시 저변에는 서로를 인정하는 동등성과 각자의 주장에 대한 지적대화의 소통 등이 녹아 있어 일반적인 당대 사대부와는 차별성을 드러낸다. 본 논문을 통하여 조선후기 사대부 부부의 애정생활과 여권에 대한 기존의 편향된 인식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2) 조선시대 문집 간행에서 저자의 위엄과 체신을 손상시키는 내용과 외설적인 내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백광훈의 시집 『옥봉집』이 1608년 초간되었을 때 수록되었던 작품의 일부가 1742년에 간행된 시집에서는 刪削되고 전혀 다른 성격의 작품으로 대체되어 간행된 사실을 들 수가 있다. 산삭된 13수는 남녀간의 짝은 애정을 담은 시였고 대체되어 수록된 시에서는 접잖은 내용의 시였다. 안대희, 『한국 한시의 분석과 시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년, 246쪽 ; 안대희, 「18세기 여성화자시 창작의 활성화와 그 문학사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129쪽 참조.

3) 이종목, 「愛情漢詩의 전통과 美學」, 『국문학연구』 제5호, 국문학회, 2001, 242쪽.

4) 사족의 부인으로서 부부의 애정을 다룬 시를 문집에 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작품들이 산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성이 부인을 위하여 제작한 사랑의 노래는 멀리 떠나 있으면서 가족에 있는 근심과 위로의 말을 곁하고 있는 ‘壽內’라는 제명의 시와 ‘悼亡’이라는 제명의 시가 대부분이다. 이종목, 위의 논문 249쪽.

2. 삼의당 부부의 소통의 기반

2.1. 역할에 대한 인정과 공감

조선시대의 여성은 남성 중심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당대 사회가 원하는 이념이나 덕목을 내면화하고 실천해야 했다. 따라서 유교적 규범의 잣대 안에서 사대부 여성들은 사대부 남성들에 비해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을 살아내야 했다. 사대부 부인들은 타당한 이유 없이 집 떠난 남편을 기다리며 어떤 불만도 표출하지 않고 현숙한 여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숙명이었다. 조선후기의 사대부 부인인 호연재(1681~1722)⁵⁾를 비롯한 많은 사대부 여인들은 남편이 집을 떠나 있어도 불만을 직접 토로하지 못하고 스스로 시름을 달래거나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조선후기 향촌의 사대부 부부인 삼의당 부부는 자신들도 인정할 정도로 부부의 애정이 돈독하였다. 이러한 부부생활의 바탕에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조선후기의 가부장제에서 남편의 역할은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벼슬함으로 가문과 가정을 세우는 일이 우선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향촌사족의 남성들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벼슬길로 나가지 않고 신분에 얽매어 다른 생계수단을 강구하지 않았으며 성리학의 탐구에 매달려 가정경제를 외면하였다.’⁶⁾ 삼의당 역시 어려운 가정경제 속에서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정을 꾸려갔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삼의당 부부는 서로의 역할에 대한 암묵적인 인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삼의당은 힘든 시집생활에서도 결혼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 의식을 표출할 수 있었다.

5) 조선후기 호연재의 시에는 여성으로서 갖는 자탄이 존재한다. 이는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부여한 여성적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통한 불만으로 및 저항의 성격이 강하다. 김순진, 「조선후기 여성 지식인의 주체 인식 양상-여성성의 시각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1쪽.

6) 김석희, 「시집살이 서사를 통해 본 향촌사족층 문학의 여성형상」, 『한국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2007, 222~228쪽 참조 ; 최상은, 「화전가를 통해 본 18·19세기 남녀의 정서와 의식지향 -은일가사와의 비교를 곁들여-」, 『반교어문연구』 31집, 반교어문학회, 2011년, 149쪽.

삼의당 부부는 결혼 첫날밤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서로 시로 수창하면서 지적인 소통을 하였다. 남편이 절구 두 편을 읊었으며 삼의당이 화답하였는데 결혼관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시집에 처음 들어간 날을 기록한 <우귀일기화(于歸日記話)>에서도 “이미 지아버가 되셨으니 지아버의 도를 다해야 하실 것이요, 이미 지어미가 되었으니 지어미의 도를 다해야 될 것입니다.”⁸⁾라고 부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가)

夫婦之道人倫始	부부의 도는 인륜의 시작이라
所以萬福原於此	만복이 여기에서 근원하네.
試看桃夭詩一篇	도요시 한 편을 시험삼아 보게
宜室宜家在之子	가족 화목이 그대에게 달렸다오

<附夫子詩>⁹⁾

(나)

配匹之際生民始	배필 정하는 때 인생의 시작이니
君子所以造端此	군자의 도는 이것에서 시작하네오
必敬必順惟婦道	공경하고 순종함만이 아내의 길이니
終身不可違夫子	종신토록 지아버 뜻 어기지 않겠어요

<同里有河氏…>

(가)와 (나)는 삼의당 부부가 결혼 첫날밤에 시로 소통하면서 표현한 것으로 자신들의 부부관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남편인 漣樂堂 하립이 읊은 시로 ‘결혼’을 인륜의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 ‘만복의 시작’이라고 부부의 만남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집안 화목의 책임이 삼의당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나)에서

7) “同里有河氏 家雖貧而世以文學鳴 有子六人 其第三日昱 風采俊偉 才藝通敏 父母每往見奇之 遣媒妁 結婚姻 遂行婚禮 禮成之夜 夫子連吟二絕 妾連和之.”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8) “既爲婦當盡夫之道 夫婦之道.” <于歸日記話>, 『三宜堂金夫人遺稿』 권2.

9)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이하 본문에 인용한 김삼의당의 작품은 모두 이 책·권에 인용하며, 작품 전체를 인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작품 일부와 인용 부분을 표기함.

삼의당은 결혼은 곧 인생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경하고 순종함이 아내의 도리이니 종신토록 거슬리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삼의당은 <계년음(笄年音)>에서도 결혼하기 전에 여성으로서 배워야 할 법칙들을 시로 형상화 하고 있는데 부모님께 효도하고 지아비에겐 순종해야 한다¹⁰⁾는 전형적인 양반가의 여성들이 가져야 할 몸가짐을 표현하고 있다. (가)와 (나)의 시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점과 아내의 다짐이 서로 상통하는 것은 부부가 철저히 유교적 규범을 수용하여 서로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女兒柔質易傷心
所以相思每發音
大丈夫當身在外
回頭莫念洞房深

아내자의 부드러운 바탕 상심하기 쉬워
그래서 그리움을 매번 말하지요
대장부는 마땅히 밖에 있어야 하니
깊은 규방에 머리 돌리지 마세요.

<寄在京夫子>

半夜山燈讀古書
榮親一誓宴新初
枕邊時有還家夢
磨鐵匡庵恐不如

한밤중 산사 등불로 고서 읽나니
영친의 맹세 신혼 초에 하였네.
베갯머리에서 이따금 집에 돌아가는 꿈을 꾸니
쇠절구공이 갈던¹¹⁾ 광암 갈지 못할까 두렵네.

<附夫子詩>

<기재경부자>는 남편이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삼의당을 그리워하는 시를 보내자 남편에게 충고하는 내용을 담은 삼의당의 시이다. ‘상사’는 여자들의 일이고 대장부는 밖에 있어야 한다고 남편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삼의당은 <계년음> 3수에서도 “남자는 안의 일 말하지 않고/ 여자는 밖의 일 말하지 않네/ 안과 밖이 이미 유별함 있으니/ 마땅히 성인의 경계를 따르는 것이다.”¹²⁾라

10) “於親當盡孝 於夫必主敬 無儀亦無非 惟順以爲正.” <笄年吟>,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11) 쇠절구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 일심으로 학업에 전념함을 이룸.

12) “男不言乎內 女不言乎外 內外既有別 當遵聖人戒.”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고 부부유별을 드러내고 있다. <계년음>은 결혼 전의 작품으로 삼의당이 어려서부터 내척을 익혀 사족 여성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철저한 유교사상에 입각한 표현이다. 또한 남편이 산에서 공부하다가 서울로 가기에 삼의당이 남편에게 준 시 <부자거산수년(夫子居山數年)…> 2수의 1~2구에서는 “자신은 비록 용렬한 여자이지만/ 당신은 하찮은 장부가 아니니”라며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목적을 달성하기를 격려하는 내용이다. 7~8구에서는 “늙으신 부모님 집에 계시니/ 비단옷 입고 일찍 돌아오세요.”¹³⁾라고 연로한 부모님을 내세워 등과하기를 재차 당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삼의당은 집안일은 자신에게 맡기고 뜻을 세워 정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자시(附夫子詩)>는 남편이 글을 읽으러 산에 들어가면서 부인에게 준 것이다. 2구의 ‘榮親’은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것으로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가문을 빛내겠다는 남편의 의지가 들어 있는 단어이다. 3~4구에서는 자신의 다짐과는 달리 늘 부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불안한 내면을 광암의 전고를 인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다음의 시는 여성의 처신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데 삼의당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治容誨淫有戒辭	고운 단장이 음탕함 일깨운다는 경계의 말
兒女心性蓋善推	아녀자의 심성 잘 추측하였네.
清晨早起盥梳足	맑은 새벽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으면 족하리니
肯把銅鏡畫蛾眉	거울 잡고 눈썹 그리랴

<讀書有感> 6수

朝夕入廚下	조식으로 부엌에 들어가도
廚下乏甘旨	부엌에 맛있는 음식 없네.
剪髮非爲賓	머리채 자름은 손님 위함이 아니요
堂上有父母	집에 부모님 계셔서라네.

<無題>

13) “吾雖庸婦子 君豈小丈夫… 鶴髮在堂上 衣錦早歸乎.”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두 편의 시에서는 삼의당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경계의 말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가정을 꾸려가는 그녀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조선후기 향촌사족 부인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는데,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것은 여성의 몫이다.

<독서유감>에서는 요염한 단장과 음탕함은 경계의 대상이며 화려한 사치보다는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하는 여성의 행실에 대해 읊고 있다. 이를 통해 삼의당은 내면의 덕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여성들도 손톱에 봉선화 꽃물을 붉게 드리고, 큰 머리를 하고 분을 바르고 붓으로 눈썹을 초승달 모양으로 가늘고 둥글게 그리는 등의 치장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의 사치가 심해지자 영조 때는 여성의 사치를 금하는 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로 오면서 성리학적 이념이 여성의 삶을 규제하자 여성 스스로 여성의 화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생겨났다.”¹⁴⁾ 이러한 모습은 삼의당의 시 <무제(無題)> 4수에서도 “저 미인 어떤 일을 할까/ 중심에 아무것도 없으니/ 나에게 무익할 뿐이니/ 벗으로 취함 옳지 않구나.”¹⁵⁾라고 읊으며 삼의당 역시 사치나 치장을 경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서유감> 6수와 <무제> 4수는 화려한 결과는 달리 내면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과는 벗으로 취함이 옳지 않다는 삼의당의 의지를 반영한다.

한편 <무제>에는 삼의당의 어려운 집안 형편이 드러나 있다. 그녀는 조석으로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준비하지만 가난하여 차릴게 없다. 이렇게 극빈한 삶 속에서도 안살림은 아내의 몫이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채를 잘라 가정살림을 책임지는 삼의당의 삶이 드러나 있다. 그녀는 “당신은 밖에서 부지런히 일하여 요순 같은 임금을 보좌해야 할 것이요, 저는 마땅히 집안에 거하여 음식 대접하는 것을 주관할 것입니다.”¹⁶⁾ 라고, 남편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구별하고 있다. 삼의당은 빈곤한 시집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녀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원망이 없다.

14) 김명희 외, 『문학으로 읽는 옛 여성들의 삶』, 이화, 2005, 102쪽.

15) “彼美人何事 其中未必有 無益於吾己 不可取而友.”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16) “子其自外 勤業佐我堯舜之君 我當居中主饋事.” <于歸日記話>, 『三宜堂金夫人遺稿』 권2.

2.2. 지적 대화를 통한 수용과 존중

삼의당 부부의 애정생활의 바탕에는 어떤 환경에서도 서로 대화하는 부부의 지적 소통이 있었다. 대등한 동료로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여길 때는 전고를 활용한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상대가 절망에 빠졌을 때는 용기를 주는 위로의 대화가 있었다. 또한 자연을 보면서 낭만적 감성을 공유하고 나누는 멋진 시적 대화가 있었고 별리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격려하는 정감의 소통이 있었다.

(가)

我是文孝公後裔
子又濯纓公之孫
追想先世因感淚
一代零替兩家門

나는 문효공의 후손이고
그대 또한 탁영공의 자손이네.
선조 추억하다 눈물 흘리니
두 집안이 같은 시기에 쇠퇴했구려.

<附夫子詩>

(나)

逮子之躬十二世
文孝家中忠孝孫
何患乎今零替久
積善先朝已高門

당신에 이르러 십이 대이니
문효공 집안에서도 충효한 자손이지요.
오래 쇠퇴함 어찌해서 근심하나요
선을 쌓은 선조 이미 높은 가문이었지요

<和夫子詩>

(가)는 몰락한 향반으로서 가문의 쇠퇴함에 좌절하고 있는 남편의 시이다. 3구~4구에서는 선대를 추억하다가 가문의 쇠퇴함으로 인한 아픔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후기에는 과거를 통하여 가문을 세우지 않으면 양반사족으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¹⁷⁾ 하립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반으로서 가문을 지켜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다. (나)는 시력이 비록 벼슬로는 가문을 세우지

17) 박무영, 「19세기 향촌사족의 여성형상: '김삼의당'(1)」, 『고전문학연구』 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229~236쪽 참조.

못했지만 선을 쌓은 선조는 이미 높은 집안이었다고 남편의 좌절을 위로하는 삼의당의 시이다. 그녀는 가문이 몰락해 가는 상황 속에서도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남편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부의 지적 대화는 상황에 따라 화답시로 드러나고 있는데 남편과 측석에서 수창할 수 있다는 것은 삼의당의 문학적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중기의 허난설현(許蘭雪軒, 1563~1589)의 남편 김성립은 독서를 핑계 삼은 외박이 잦았고 부부 사이도 좋지 않았다.¹⁸⁾ 조선 후기의 호연재의 남편은 어머니를 모신다는 이유로 첩과 생활하면서 부인에게 소식을 잘 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삼의당 부부는 일상적 대화는 물론이고 떨어져 있는 기간에도 시나 편지로 끊임없이 깊은 대화를 이어나갔다.

삼의당 부부는 어떤 관점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자신들의 의견을 놓고 진지하고 거침없는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남편 하립은 끝까지 이기려고 하지 않고 아내의 의견을 수용하고 칭찬하였다. 자신 또한 지적인 선비로서 본인의 주장을 꺾기는 쉽지 않은데, 하립의 아내에 대한 애정과 겸손이 드러난 대화이다. 조선후기의 규훈서에는 내외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아내가 남편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 하립은 삼의당이 남자들의 언어인 ‘충(忠)’에 대해 언급했을 때 반박하다가 아내의 논리적인 말을 수용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다.

世間幾男兒	세간에 남아가 몇인가
忠孝一婦子	충효로운 부인이 있네.
吾東四百年	우리 동방 사백년
風化觀於此	풍화를 여기에서 보겠네.

之子宣家法	이 사람 가법 잘 지키리니
須看取古詩	모름지기 고시를 보고 취하네.
平生忠孝意	평생 충효의 뜻

18) “嗚呼 生而不合於琴瑟” 許筠, 『鶴山樵談』.

愧不及蛾眉 여인에게도 미치지 못해 부끄럽네.

<禮成夜記話>

삼의당이 결혼한 날 밤에 남편이 말하였다. “평생 남편을 어겨서는 안 된다면 남편에게 허물이 있다 해도 또한 따르겠는가”¹⁹⁾라고 물었다. 삼의당은 “내가 지 아버를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 어찌 지아버의 허물까지 따름을 의미하겠습니까?”²⁰⁾라고 반문한다. 남편의 허물까지 따를 수 없다는 삼의당은 당당한 자신의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무조건적인 여필종부가 아니라 남편을 올바른 길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하립은 삼의당이 고시를 섭렵했음을 알고 옛 사람의 시 가운데 어떤 사람의 시가 가장 아름답냐고 물었다. 삼의당은 두목의 시에서 ‘평생 오색 실로 순임금의 옷을 깎기를 원하네.’를 취해 자신이 평소에 읊는 것이라 하였다. 이것은 임금 곁에서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은 ‘충(忠)’을 염두에 둔 말이다. 하립은 여성이 취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고 하였다.²¹⁾ 이와 같은 하립의 주장은 당대 사대부 남성들의 공통적인 시각이었다. 삼의당의 발언은 “보편적인 여성적 말하기에서 벗어나 있다. ‘충’의 시적 제재는 여성적 사유범위를 뛰어넘는 공적 영역이기 때문이다.”²²⁾

이에 삼의당이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유독 남자만의 일인 가’라는 물음에 하립은 ‘인간의 도는 효보다 앞선 것이 없다.’²³⁾고 반박하였다. 삼의당은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였다. ‘공자께서 증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입신양명 하여 부모님을 드러내는 것이 효의 끝이다.’²⁴⁾라고

19) “終身不可違夫子 則夫雖有過 亦可從之歟” <禮成夜記話>, 『三宜堂金夫人遺稿』 권2.

20) 然則吾所謂不可違夫子者 豈謂其從夫之過歟” <禮成夜記話>, 『三宜堂金夫人遺稿』 권2.

21) “古人詩中 何句最佳…但杜牧之詩 所謂 ‘平生五色線 願補舜衣裳’ 者 是吾雅誦也 夫子曰夫人奚取焉 此詩之意在男子則可矣 於夫人則不可也.” <禮成夜記話>, 『三宜堂金夫人遺稿』 권2.

22) 박무영, 「여성적 말하기와 여성 한시의 전략」, 『여성문학 연구』 제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24쪽.

23) “余曰 忠君愛國奚獨男子事也…人之道莫先乎孝也.” <禮成夜記話>, 『三宜堂金夫人遺稿』 권2.

24) “孔子謂曾子曰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開宗明義章>, 『孝敬』 제1장.

하셨으니 ‘효친의 도에 무엇이 충군보다 앞서는 것이겠는가?’라고 주장하였다. 삼의당은 남편과의 토론에서 전고를 인용하여 자신의 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하립은 결국 부인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부인이 시를 취하는 것은 옛 고서의 사씨의 대답과는 다르고 충효에 관한 말은 간씨의 풍보다 낫다고 칭찬하였다.²⁵⁾ 결혼한 날 밤에 두 사람의 ‘충’과 ‘효’에 대한 학문적 토론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삼의당의 지적 능력과 하립의 부인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적인 아내는 자신에게 열등감을 안겨 줄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립은 우월하지 않고 폭넓게 부인을 인정함을 볼 수 있다. 삼의당 부부의 결혼 초야부터 이루어진 지적인 토론은 서로에 대한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부인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주체적인 대등한 동료로 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집 앞의 작은 자연에서 시작하여 깊이 있게 이어지기도 하였다. 다음의 시에서는 남편의 과거시험 낙방에 대한 삼의당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有書須好讀	책 있으면 모름지기 독서를 좋아해야지
不學不爲人	배우지 않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네.
十載燈前客	십 년 동안 등불 앞의 나그네
玉廷利用賓	조정에서 이용되는 손님이 되리.

<勸學吟>

무릇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아, 미물의 소리도 한 번 들으면 그 선악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하물며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간사한 소리, 귀에 요란한 악성이야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께서는 어찌 군자와 소인의 말을 변별하지 못하시고 선성을 물리치고 악성으로 나아갑니까? 남편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 부인께서 한번 듣고 그 선한 말 듣는 방법을 알게 되고 다시 들음에 그 선악의 구별을 알게 되셨으니, 사물을 관찰함에 술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소.²⁶⁾

25) “…今吾夫人取詩之法 可謂異於謝氏之對 而忠孝之言 可謂愈於侃氏諷也.” <禮成夜記話>, 『三宜堂金夫人遺稿』 권2, 참조.

<권학음> 3구와 4구에서 십 년 동안 등잔불 앞에 앉아서 공부한 남편은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지만 조정에 이용되는 손님으로 표현하고 있다. 삼의당은 “지 아버를 살펴보니 누항에 사는 것이 아마도 성세라면 마땅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졌다.”²⁷⁾라고 생각하듯이 남편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성세라면 남편이 과거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남편의 연이은 낙방을 부조리한 세상 탓으로 인식하고 있다. <독서유감> 8수의 1구와 2구에서도 “사람들 어진 이 알지 못하니 어찌할까/ 알면서도 들어 쓰지 않으니 장차 어찌하겠는가.”²⁸⁾라고 시대상황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생각은 하립 자신도 ‘미사여구의 문장꾸미기 기교가 부족해서 용문에 오르지 못했다.’고 부당한 과거제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²⁹⁾

<문앵기사>에 따르면 하립이 과거를 포기하고 신유년 선달에 부부가 진안 방화리로 농사짓기 위해서 이사했다. 주위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삼의당이 남편에게 말했다. ‘만일 꽃나무가 없다면 좋은 소리가 들려올 수 없듯이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없다면 선한 말을 들을 수 없고 임금에게 좌우의 어진 이가 없다면 현명한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꾀꼬리 소리로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남편은 부인의 지혜로운 말을 인정하고 사물을 관찰하는 것에 술수가 있다고³⁰⁾ 칭찬하였다.

주위의 자연관찰을 통하여 남편의 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이끌어내고 심도 있는 대화로 확장한 삼의당의 재치와 현명함이 돋보인다. 하립은 부인의 지혜에 탄복하면서 아내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고 포용한다. 이와 같이 남성담론의 전유

26) “夫人曰 噫微物之聲 一聞可知其善惡 況其奸音撓心惡 聒聽者乎 人君何不辨君子小人之言 而進惡退善耶 夫子曰 古之聽鶯者多矣 而李白清平之詞 只是讚美盛德 戴顓黃柑之聽 不過鼓出詩場 而未有諷戒人君者 今吾夫人一聽而知其聞善之方 再聽而知其善惡之別 可謂觀物有術矣.” <聞鶯記事>, 『三宜堂金夫人遺稿』 권2.

27) <于歸日記話>, 『三宜堂金夫人遺稿』 권2.

28) “人莫知賢可奈何 知而不學亦將那.”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29) “一日夫子謂妾曰 我技乏雕蟲 路阻登龍.” <聞鶯記事>, 『三宜堂金夫人遺稿』 권2.

30) “辛酉臘月 移寓鎮安馬靈之訪花里 翌年二月新宇築城 環居皆樹木也 時當清和 芳陰滿地 俄有好音出於濃綠之間 使人心氣和平 宛生於鼓 瑟吹笙之中也 妾顧謂夫子曰 吾所居若無芳樹 彼好音胡爲而來哉 故人而無芳隣 不得聞善言 君而無賢左右 不得聞昌言…今吾夫人一聽而知其聞善之方 再聽而知其善惡之別 可謂觀物有術矣.” <聞鶯記事>, 『三宜堂金夫人遺稿』 권2.

물이었던 역사적 인물이나 성현의 언행을 부부가 같이 논한 점은 삼의당의 뛰어난 지적 능력과 부인을 대등한 동료로서 존중하는 남편의 배려가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3. 삼의당 한시의 애정 표현방식과 의미

문학에서 애정을 중시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16세기 이래의 조선의 사조는 명의 복고주의 사조의 영향을 받았다. 그것은 사랑의 욕구와 표현을 기피하는 관습적 제약을 벗어나는 도피처의 구실을 할 수 있었다. 18세기에 이르러 소수의 남성작가들은 조선 사람의 현실적 애정생활을 표현하고 작가의 개성을 드러내려는 지향을 드러냈다.³¹⁾ 이와 같은 문학적 현상은 “조선후기에 들어 다양하게 발산되는 여성 정감의 보편적인 경계나 규제원리가 허물어지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³²⁾ 그러나 이러한 여성 정감의 자유로운 표현의 지향이 사대부 여성 작가에게 허용된 것은 아니었다.

삼의당은 <독서유감> 3수의 1~2구에서 “성정에서 나오는 것이 시를 이루니/ 시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³³⁾는 표현으로 시적 내용과 작가가 무관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삼의당 한시의 대부분은 남편을 지향하고 있는데 신분을 뛰어넘는 감성적 표현과 주체적 사유들이 표현되어 있어서 문학적 가치를 더해준다.

3.1. 규범과 정감의 애정화답

삼의당이 어릴 때부터 체화된 유교의 규범은 사대부 부인으로서의 삶이었다. 이러한 사상은 그녀의 시적 표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유가의 사

31) 안대회, 앞의 논문, 134쪽 참조.

32) 박영민, 「18세기 한시에 나타난 여성정감의 미적 특질 -李安中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과미학』, 태학사, 2003, 210쪽.

33) “出於性情方爲詩 見詩固可其人知.”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대부 문화는 여성정감의 표출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약을 가하고 개인의 정감표출에 일정한 제한을 두었다. ‘발어정(發於情)’, ‘지어례(止於禮)’, ‘낙이불음(樂而不淫)’, ‘애이불상(哀而不傷)’, ‘낙종화(樂縱和)’라는 윤리의 규범들은 개인에게 넘어서는 안 되는 정감의 경계가 엄존함을 말해준다.”³⁴⁾

‘조선후기의 문집을 살펴볼 때 아내에 관한 언급은 대부분 제망문(祭亡文)이나 도망시(悼亡詩)·묘지명과 행장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다.’³⁵⁾ 사대부 남성들은 일상 삶에서는 부인에 대한 정감 표현을 자제하다가도 죽음에 이르러서야 부인의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적은 수이지만 부인의 시를 소중히 하고 인정해 주는 남편들이 있었다. 조선후기의 서영수합(1753~1823)³⁶⁾이나 강정일당(1772~1832)³⁷⁾ 등은 남편들이 나서서 아내의 시를 관리하였다. 영수합의 남편은 지방 관직에 나가있으면서 적적함을 이기려고 부인과 서로 시로 수창하고 싶었다. 그러나 영수합은 자신의 글쓰기를 자제하였다. 보편적으로 조선시대 사대부 여성들이 문학적 글을 쓰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기 때문이다.³⁸⁾ 삼의당도 자신의 문학활동에 대해 ‘어찌, 시문이나 서화로 형상화

34) 안대희, 앞의 논문, 210쪽.

35) 조선후기 도망시를 쓴 대표적인 사람이 신위(紫霞 申緯 1769~1847)이다. 신위는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절절한 애정을 드러낸 시를 많이 썼는데, 정실과 후실의 부인에 대한 시는 부인이 죽은 후에 悼亡詩로 표현했다. 김경숙, 『紫霞 申緯의 아내와 딸에 대한 인식』, 『우리 한문학과 일상문화』, 소명출판, 2007, 38~39쪽 참조.

36) 감사 서형수(1725~1778)의 딸인 영수합(1753~1823)은 승지 홍인모(1755~1812)에게 출가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두었는데 연천 홍석주, 향해 홍길주, 영명 홍현주, 흥유한당이 모두 당대 뛰어난 문장가였다. 그 자제들이 홍인모의 문집 『足睡堂集』 6권을 목판하고 간행하면서 어머니의 시 192편을 덧붙여 『令壽閣稿』를 부록으로 덧붙였다. 安姪榮, 「18~19世紀 士大夫 女性 漢詩 研究 -浩然齋 金氏·令壽閣 徐氏·三宜堂 金氏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3쪽.

37) 강정일당의 남편 윤광연은 친척인 윤광주의 집안 3대의 문집을 간행하는 일을 맡아 완성하였는데 그 간행을 고하는 편지를 아내인 정일당에게 대신 쓰게 했다. 또한 남편을 대신하여 지은 시문들의 다수가 윤광연의 제자들이나 교유 관계에 있던 인물들로 인하여 쓴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부인의 문식과 능력을 존중했음을 알 수 있다. 김순천, 앞의 논문 84쪽 참조. ; 김남이, 「부부의 인연, 사우의길」, 『우리 한문학과 일상문화』, 소명출판, 2007, 63~95쪽 참조.

38) 정일당 사후에 윤광연은 부인의 문집을 엮으려 하였다. 그러나 『정일당유고』에 자취를 남긴 외부 인사들은 여성문집의 간행이 규범과 배치된다고 하였다. 특히 홍지필은 『정일당유고』의 간행이 부인의 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서문 짓기를 거절한다. 박무영, 「여성시문집의 간행과 19세기 경화사족의 육망 -정일당유고의 간행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33집, 2008, 393

하여 세상의 비웃음과 꾸짖음을 범할 수 있겠는가? 다만 집안에서 보고 듣고 겪은 바를 혹은 말로 혹은 시로 정 가는 대로 써 훗일의 경계를 삼고자 한다.³⁹⁾ 라고 <자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는 자신의 문학활동이 사대부 부인으로서 격에 맞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낸 말로써 여성의 글쓰기를 금기시하는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의식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엔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교양을 쌓기 위한 독서는 허용했으나 문학활동은 배제했던 것이다. 이덕무는 <부의(婦儀)>에서 “남편이 인방을 좋아하는 것은 부인의 수치이다.”⁴⁰⁾라고 할 정도로 부부가 함께하여 애정을 표현하는 것도 조선 후기에는 수치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삼의당 부부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결혼 후에 남편 하립은 “이 사람 집에 오에 꽃 찬란하니 온 집안의 화기가 온통 춘풍이네.”⁴¹⁾라고 하였다. 삼의당은 “달 같고 꽃 같은 사람 대하고 앉으니 세간의 영욕 누구 집에 속할까?”⁴²⁾ 라고 남편의 시에 화답하면서 함께 뜰을 산책하고 서로의 감성을 나누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삼의당 부부의 수창시에는 집안의 화창함과 세상 영욕이 부럽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행복한 부부의 애정이 드러나 있다.

(가)

大丈夫何學女兒	대장부 어찌 아녀자를 배우리오
致君堯舜此其時	요순임금 이르는 때 바로 이 시기라.
情書一面相思字	정 담긴 글 일면에 상사의 글자는
惟在閨中婦子宜	오직 규중 부녀자에게나 마땅하네요

<夫在京有書 尾附以詩 妾和之>

(나)

人間立志是男兒	인간으로 뜻세움은 바로 남자이니
---------	-------------------

~394쪽 참조

39) “而何嘗形諸文墨 以犯世之譏諷.” <自序>,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40) “丈夫好內 亦婦人之羞也.” 李德懋, <婦儀>,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6, 보고사, 2010, 452쪽.

41) “之子歸來花灼灼 一門和氣盡春風.” <附夫子次韻> 3~4구,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42) <奉夫子夜至東園 月色正好 花影滿地 夫子吟詩一絕妾和之> 3~4구,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況復太平值聖時	하물며 다시 태평한 성시 만남에랴.
每到旅窓明月夜	객창에서 매번 달 밝은 밤 이르면
相逢惟在夢中宜	서로 만남은 오직 꿈속에서나 있어야지요.

<附夫子詩>

(가)는 삼의당의 시로 남편의 시 (나)에 대한 화답이다. 남편이 오랫동안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부인에게 보낸 편지 말미에 이 시를 붙여서 보냈는데 삼의당도 남편에게 화답하였다. (나)에서 기약 없이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하립은 피폐해진 정신적 불안감을 부인 생각으로 위로 받곤 하였다. 1구와 2구에서 과거에 합격해야 한다는 대장부로서 뜻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립과 온 가족의 바람이다. 3구와 4구에서는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부인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현실의 상황을 간절한 그리움으로 표현하였다.

(가)는 부인에 대한 생각으로 뜻을 그르칠까봐 ‘상사’라는 글자는 규중 부녀자에게나 마땅하다고 남편에게 일침을 가하는 삼의당의 시이다. 조선 후기의 사대부 부인상은 ‘남편의 선행을 돕고 남편이 아름다운 명예를 끼치도록 내조하는 일이다.’⁴³⁾ 남편의 시 <부부자차운(附夫子次韻)> 3구와 4구에서 “밤마다 그리워하는 사람 어느 곳에 있나. 미인은 깊은 오색구름 속에 단정하게 앉아 있네.”⁴⁴⁾ 라고 부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와 같은 내용은 <부자거산수년(夫子居山數年)…>⁴⁵⁾ 1수에서도 같은 맥락이다. “남자는 마땅히 뜻을 위해 죽어야지 어찌 반드시 여인네만 그리워하겠어요.”⁴⁶⁾라고 단호하게 표현하여 남편의 학업을 독려하고 있다. 그녀 역시 결혼 2년 만에 남편과 헤어져 피눈물을 흘리는 그리움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남편에게 보낸 시에는 추상같은 꾸밈음으로 남편의 마음을 잡아주고 있다. 대의를 위해 자신의 감성을 억누르는 전형적인 사대부 여인의 모습이다.

43) “是以婦人之賢者 必一心思輔其夫之善行 思貽其夫之令名.” 韓元震, <事家長章第三>,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2, 보고사, 2010, 31쪽.

44) “夜夜相思何處在 美人端坐五雲深.”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45)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46) “男兒當死志 何必戀紅裙.”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가)

一月兩地照	하나의 달 두 곳을 비추지만
二人千里隔	두 사람은 천리나 떨어져 있네요.
願隨此月影	원컨대 이 달 그림자 따라
夜夜照吾側	밤마다 제 곁을 비춰 주세요.

<秋夜月> 2수

(나)

相思苦相思苦	그리움의 고통이여 그리움의 고통이여
鷄三唱夜五鼓	셋째 닭 울음에 밤 오경 북 울리네.
脉脉無眼對鴛鴦	계속 잠 못 들고 원앙금침을 대하니
淚如雨淚如雨	눈물이 비처럼 흐르네. 눈물이 비처럼 흐르네.

<夫子自京 經年未歸 余題詩以伸情私> 1수

(가), (나)의 시는 남편의 과거시험 준비로 삼의당이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지은 시이다. 사대부 여성으로서는 표현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파격의 내용이다. 현실의 솔직한 정감을 표현한 이 시들은 사대부 여성이 닫고 서 있는 현실에서 남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진실된 정감이다. (가)는 하늘의 달을 보면서 남편을 그리워하는 삼의당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데, 달을 매개로 남편과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 <추야월(秋夜月)>의 1구에서 하나의 달은 남편과 자신이 있는 곳을 동시에 비춰 두 사람을 연결해 주지만 2구의 두 사람의 거리는 천리나 떨어져 있어 거리감과 한계가 느껴진다. 3구와 4구에서 달그림자를 따라 밤마다 내 곁을 비춰주라는 표현은 남편과 함께 하고 싶은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는 유교의 규범에서 벗어난 여성적 정감이 드러난다. <추규사(秋閨詞)> 3수의 3구와 4구⁴⁷⁾에서도 깊은 밤, 잠 못 이루는 여심이 표현되어 있다. 달빛은 뜰 앞에 가득한데, 오지 않는 잠을 이불에 기대어 억지로 청해 본다. 꿈속에서 사랑하는 남편 곁에 이르자 깜짝 놀랐다는 안타까운 규방여인의 애달픈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춘경(春景)> 1수에서도 “그대 그리워 밤

47) “凭衾強做相思夢 纔到郎邊却自驚.” <秋閨詞>, 『三直堂金夫人遺稿』 권1.

에도 잠들지 못하네.”⁴⁸⁾라고 하였고 <추야(秋夜)> 3수에서도 “차디찬 병풍 사이에 홀로 앉아 잠 못 이루니”라고 남편이 없는 외로운 여심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남편이 과거에 실패한 후 서울에서 일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전형적인 규원의 한을 표현한 시이다.

규원의 한을 표출한 시는 조선시대 사대부 여성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데, 과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을 떠나 있거나 기방 출입으로 또는 첩과 기거하면서 부인과 소식을 끊은 상황도 있다. 삼의당 부부도 전자의 이유로 별리 상태에 있었다. 결혼하여 2년이 지난 후 남편과 이별하고 시댁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그녀의 세계는 닫힌 공간이다. 삼의당은 남편 생각으로 새벽까지 눈물 흘리며 잠 못 드는 자신의 괴로움을 ‘상사고(相思苦)’라는 시어를 중첩하여 자신의 고통을 직설적이며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녀는 남편에게 보내는 시에서는 ‘相思’는 여인들의 일ियो. 대장부라면 뜻을 세워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남편을 향한 사랑과 기다림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삼의당의 별리의 아픔을 표현한 시는 <춘규사(春閨詞)> 18수, <추규사(秋閨詞)> 11수, <춘뇌곡(春惱曲)> 4수, <춘경(春景)> 8수, <추야우(秋夜雨)> 2수, <추야월(秋夜月)> 2수, <오야제(烏夜啼)> 3수 <오동우(梧桐雨)> 등이 있다.

<추규사> 4수의 4구에서는 “내일 아침 어느 곳으로 그대에게 편지 부칠까.”라는 표현으로 그리운 남편에게 소식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멀리 남편과의 소통은 글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춘뇌곡> 2수의 7~8구에서는 “중문 닫고 홀로 있으니 깊고 적막해/ 님 그리는 한조각 꿈 또 하늘 끝이라.”⁴⁹⁾고 읊고 있다. 또한 <추야> 3구에서는 “병풍 안에 홀로 앉아 추위 잠 못 이루니”라고 했고 <추규사> 5수의 3~4구에서는 “온 밤 그리워함 능히 얼마인가/ 아침 되니 무수한 베갯머리의 시네.”라고 밤새 남편을 그리워한 마음을 시작으로 승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내재된 슬픔, 잠재된 괴로움이 내면에서 개체의 자의식으로 모이면 이는 은유나 함축으로는 제어되지 않는,

48) “思君夜不寐” <春景>,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49) “獨閉重門深寂寂 相思一夢又天涯.” 『三宜堂金夫人遺稿』 권1.

직접적인 토로나 발산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경계로 나아간다.’⁵⁰⁾ 따라서 유교의 규범에서 제어한 감정의 선을 넘어 사실적이고 진실된 내면의 토로⁵¹⁾에서 시적 미감을 찾을 수 있다. 삼의당은 성리학적 가족질서 내의 여성이기 전에 인간이고자 하는 의지를 절실한 정서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었다.

(가)

何處梧桐一葉飛	어디에서 오동 잎 하나 날아오니
新秋消息客先知	새 가을 소식 객이 먼저 아네.
年年天上相逢夜	해마다 천상에서 상봉하는 밤은
立志人間恨別時	뜻 세운 이 인간세상의 이별을 한스러워 하네.

<附夫子詩>

(나)

秋風送雁雁南飛	가을바람에 기러기떼 남쪽으로 날아오니
之子之心我獨知	당신의 마음 나만 홀로 알지요.
天上一年一相見	천상에선 일 년에 한 번 만나는데
何如人世每逢時	어찌 인간세상에선 늘 만날 수 있나요

<夫子又入山讀書 值七夕寄詩 妾和之>

(가)는 남편 하림이 산속에서 과거 준비로 공부하다가 칠월칠석날 부인에게 보낸 시이다. 결혼한 지 2년여 만에 부인과 떨어져 외롭게 공부하고 있는 하림은 어디선가 날아온 오동잎 한 잎을 보고 가을을 느끼며 부인을 생각한다. 칠월칠석날은 이별한 부부의 견우직녀가 공식적으로 일 년에 하루 만날 수 있는 날인데 자신들은 만나지 못하고 이별을 한스러워 할 뿐이다. 남편 하림의 부인에

50) 박영민, 앞의 논문, 218쪽.

51)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서영수함은 시를 표현함에 있어서 강제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녀는 여자로서 시작활동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사람의 시에 붙이거나 회답하는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녀의 내면적 자아 수양과 시인으로서 자아 완성의 태도는 詩敎的 자세에서 연유하였다. 따라서 사대부 여성으로서 유교적 규범을 벗어나지 않았고 그 사상 안에서 시작을 하였다. 영수함의 시는 남편에 대한 상사고 대신에 자식에 대한 권고나 자식을 기다리는 시가 많다. 安姓築, 앞의 논문, 41쪽.

대한 애정이 절실하게 표현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나)는 남편의 시에 화답하는 삼의당의 시이다. 남편이 오동잎을 보며 부인을 생각했다면 삼의당은 남쪽으로 날아오는 기러기를 보며 남편을 생각한다. ‘오동잎’과 ‘기러기’의 소재 선택이 절묘하게 가을로 연결되어 있다. 2구에서 부인을 그리워하는 남편의 마음을, 자신만 홀로 안다고 표출하고 있는데, 자신 또한 남편을 간절하게 그리워하기 때문에 남편의 마음을 절실하게 공감한다. 부부의 애틋한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표현되어 있다.

다음은 긴 이별 뒤에 하룻이 과거시험을 포기하고 진안으로 이사해서 같이 농사를 지을 때 지은 삼의당 부부의 시에는 편안함과 안정감 속에 애정이 깔려 있다.

(가)

夕陽離席坐芳陰	석양에 자리 옮겨 꽃그늘에 앉아
深樹幽禽又好音	깊은 숲속 그윽한 새소리 또한 좋아라.
濁酒三盃歌一曲	탁주 석 잔에 노래 한 곡
淸風明月主人心	청풍명월은 주인의 마음이네요.

<與夫子吟>

(나)

茅屋數間依樹陰	몇 칸의 초가집 나무 그늘 의지하고
落花滿地小筇音	낙화는 땅에 가득한데 작은 지팡이 소리.
北窓時遇淸風至	북창에 때때로 맑은 바람 이르니
自有羲皇上世心	절로 상고 복희 적 마음 있네.

<附夫子次韻>

이 시들은 출사에 좌절한 사족의 패배의식에서 자유롭고 부부의 여유로운 자연관조의 만족감이 표현되어 있다. 삼의당은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세워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녀의 혹독한 고생은 보람도 없이 남편은 여러 번의 시험에 낙방하고 같이 농사를 짓자고 하였다. 농사지를 땅을 찾아 이사하자

는 남편의 제안에 도리에 합당하다고 말하고 남편을 따른다.⁵²⁾ 오랫동안 품었던 삼의당의 욕망은 남편의 한마디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쩌면 양반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지만 흔쾌히 남편을 따르는 모습에서 항상 남편을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는 부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남편과 함께하는 삶은 아무리 힘든 전원의 생활이어도 그녀에게는 행복의 장소이다. 서로 떨어져 있을 때 보던 자연은 슬픔의 대상이었지만 남편과 같이 바라보는 자연은 충만한 아름다움의 대상이었다. 향촌사족이지만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전원에서의 생활에 불만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3.2. 삼의당의 애정시가 갖는 의미

부부의 사랑은 인간의 보편적 정서로서 시대를 초월하여 문학적 소재로 활용되었다. 다만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규범으로 인하여 사대부 부부 사이의 애정을 한시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부 부인들은 부부간의 애정적 삶을 표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시기의 사대부 부인들의 삶은 외부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남편에게 향해 있으며 남편의 작은 행동까지도 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규방 여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대부 부인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남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부부의 애정은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부분이며 부부간의 애정을 통해 당대를 살았던 여성들의 의식과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문학사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흔히 조선시대 사대부의 부부생활에서 여성은 수동적인 존재로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당대에도 부부간의 존중과 신뢰가 있었고 직설적 애정표현도 있었다.

조선중기의 애정이 돈독했던 부부로는 송덕봉(1521~1578)과 그 남편 미암 유희춘(1513~1577)이 있다. 이들 부부도 서로 한시로 소통하면서 진보적이고 애정적 부부생활을 일궜다. 현전하는 그녀의 시 25수는 부부간의 애정에 대해

52) “吾聞月浪之陽 來東山下 地多寬閒 田有餘優 今任耕之 無憂養親 吾筮已決也 子當從之乎 君子之言 甚合道理 盍往早圖之?” <開鶯記事>, 『三宜堂金夫人遺稿』 권2.

직설적인 표현은 없고 담백하여 유교적 선을 넘지 않았다. <磨天嶺上吟>⁵³⁾은 시어머니 상을 마치고 남편을 보기 위해 귀양지인 머나먼 종성에 가면서 마천령 고개 위에서 지은 시이다. 사대부 여인으로서 남편의 귀양지까지 가는 그녀의 행동은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운 남편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유교적 규범으로 감추고 있지만 행간에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드러난다.⁵⁴⁾

송덕봉과 동시대를 살았던 허난설헌(1563~1589)도 인간의 애정적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 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애정을 당시풍의 한시를 모방하여 표현하였다. <采蓮曲>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연밭도 캐고 목란밭도 타면서 사랑을 키우고 싶은 소망을 고대 악부시의 주제를 수용하여 드러내었는데 작가와 화자가 모두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성을 얻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기부강사독서(寄夫江舍讀書)>⁵⁵⁾는 공부하러 떠난 남편이 기생방에서 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술과 함께 남편에게 보낸 시이다. 당대 사대부 여성으로서는 현실에 순응하지 않은 파격적인 표현이었다.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이 시가 너무 방탕하여 『난설헌집』에 실리지 못했다.⁵⁶⁾고 하였는데 인간의 순수한 애정적 정감을 표출하고자 한 이 시는 사대부들에게 질타의 대상이 되었으며 남편의 사랑을 얻지도 못했다.

조선후기의 사대부 부인으로는 호연재 김씨(1681~1722)와 강정일당(1772~1832), 그리고 김삼의당 등이 있다. 호연재 김씨는 <부부장(夫婦章)>에서 부부의 화합을 강조할 정도로 남편과의 화락한 가정을 꾸미고 싶어했다. 그러나 호연재의 부부생활에서 남편의 첩은 부부생활의 갈등의 주체였으며 그녀는 남편의 첩을 적국으로 표현하였다. 호연재의 시는 남편에게 외면당하고 외로움과 한

53) 걷고 걸어 마천령 이르니 行行遂至磨天嶺/ 동해는 거울처럼 잔잔하고 끝이 없네 東海無涯鏡面平/ 부인 만 리길 어이 왔나 萬里夫人何事到/ 삼종의리 중하니 이 한 몸 가볍네 三從義重一身輕. 안동교 외 2인 역, <磨天嶺上吟>, 『국역덕봉집』, 심미안, 50쪽.

54) 한성급, 『16세기 사족녀의 한시에 나타난 사유와 표현양상』, 『한국언어문학』 제95집, 한국언어문화회, 2015년, 296쪽 참조.

55) “燕掠斜簷兩兩飛 落花搖亂撲羅衣 洞房極目傷春意 草綠江南人未歸.” 李晔光, <芝峯類說>, 『詩話叢林』 권3.

56) 김명희 외 3인 공저, 『문학으로 읽는 옛 여성들의 삶』, 이화, 2005, 44쪽.

으로 남편을 기다리는 여심으로 표출하고 있다.⁵⁷⁾

강정일당(1772~1832)은 여섯 살 어린 남편을 사대부 선비로서 정체성을 갖도록 이끌었다. 윤광연은 강정일당 사후에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들의 비난 속에서도 부인의 작품이 유실 될까 봐 부인의 사후 4년이 지나서 문집을 만들었다. “정일당의 한시 38편과 산문⁵⁸⁾에는 부부의 애정을 드러낸 것이 없고 화려함이나 수식이 없으며 경계하는 말이 대부분이다.”⁵⁹⁾ 그녀 역시 사대부 부인으로서 자신이 성리학적 기반에 근거하여 학문을 했기 때문에 감성적인 글을 남기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부부의 삶에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깊은 신뢰와 애정이 드러난다.

조선후기의 김삼의당 부부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 건전한 부부상을 드러낸다. 이 시기는 사대부 여성 한시의 부부 애정에 대한 주제는 표현적 한계 때문에 유교의 규범에 맞게 표현되었고 감정을 거세한 시적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삼의당은 사대부 부인으로서 조선 후기의 사대부 규범을 따르면서도 남편과의 소통에서 애정적 감성을 솔직하게 표출하였다. 즉 당대의 보편적인 유가의 정감표출을 뛰어넘어 진실하고 과감한 감성표출로 사대부 여성의 한시문학사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삼의당의 애정시에는 부인만의 일방적 표현이 아니라 남편의 아내에 대한 애정 표현의 시도 드러났다. 이와 같은 부부 사이의 애정적 교감의 표현은 부인의 자존감을 살려주고 응대해 주는 남편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어서 타 사대부 부부의 작품과 차별성을 갖는다.

삼의당 부부의 애정의 바탕에는 어떤 환경에서도 막힘없는 부부의 소통과 상대에 대한 존중이 큰 역할을 하였다. 남편의 뜻을 무조건 따르지 않는 주체적 목소리도 애정으로 수용하는 남편의 배려가 있었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상대를 인정하는 토론의 장이 있었고 같은 시선으로 바라

57) 그녀는 <詠桃>에서 “주인께선 무슨 일로 늦으실까”, <偶吟>에서는 “근래 소식 잡기 또한 어렵네.”라고 했으며 <孤鴻>에서는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혼이 끊어지려 하네.”라고 하였다. 김순천, 앞의 논문, 12쪽 참조.

58) 정일당이 대필한 작품은 시 8편, 산문 서신 5편, 기문 2편, 묘지명 3편, 행장 3편 등 산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창권, 『조선의 부부에게 사랑법을 묻다』, 푸른역사, 242쪽.

59) 박현숙, 『한중인문학연구』 9, 중한인문과학연구회, 2002, 31쪽 참조.

보고 공감하여 정감을 나누는 멋진 시적 교류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소소한 생활에서 주제를 선택하고 깊이 있는 담화로 이어지는 대화의 확장이 있었다. 이러한 소통의 현장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부부의 애정적 삶이 있었다.

이들의 부부생활이 조선 후기의 전형적 사대부의 모습은 아니지만 여성의 주체적 자아의식이 존중되고 규범의 한계를 벗어난 건전한 부부상을 열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선시대 사대부 부부생활의 단면을 새롭게 재인식하는 계기를 갖게 되리라 기대한다.

4. 결어

본 논문에서는 삼의당의 한시를 통하여 조선후기의 사대부 부인의 애정양상을 고찰하였다. 인간의 보편적 정서인 애정은 오랫동안 문학작품의 제재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부부의 애정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조선시대 사대부 생활에서 부부의 애정을 소재로 한 시는 많지 않다. 유교적 규범 안에서 사대부 부인으로서 부부의 애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의당의 남편을 향한 과감한 애정표현, 삼의당 남편의 부인에 대한 애정고백은 조선 후기 사대부 부부의 보편성을 깨는 일이었다 할 수 있다.

삼의당 부부의 애정의 바탕에는 부부의 소통이 큰 역할을 했다. 소통의 기반에는 서로의 역할에 대한 인정과 공감이 있었다. 그들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이 인정한 각자 책임은 남편은 등과하여 가정을 세우는 일이었고 아내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정을 꾸려가는 일이었다. 이러한 서로의 역할에 대한 암묵적인 인정이 있었기에 삼의당은 남편과의 긴 이별에서 경제적 도움이 없었어도 결혼에 대한 기대와 긍정의식을 지닐 수 있었다. 삼의당 부부의 소통의 기반의 다른 하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서로 대화하는 부부의 지적 소통이 있었다. 때로는 사대부 부인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치열한 토론과 이를 응해 주고 수용하는 남편

의 모습이 있었다. 또한 뜰 앞의 작은 자연을 보면서 공감하며 시를 주고받는 지적인 감정의 교류가 있었고 나무에서 지저귀는 새를 보며 정치적 사안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깊은 대화의 확장이 있었다. 이러한 소통의 바탕에는 상대의 존중과 부부의 애정이 깔려 있었다.

삼의당의 애정표현 방식은 규범과 정감으로 남편과 화답하였다. 그녀는 사족의 부인으로서 유교적 규범의 삶을 지향하여 규범적 시를 남겼다. 그러나 규범적인 삶 뒤에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자신의 아픔과 그리움을 숨김없이 표출한 정감적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의 사대부 문화는 사족 부인들의 여성정감의 표출에 대해 엄격하게 제약을 가하고 제한을 두었지만 삼의당의 남편에 대한 애정시는 시대적 한계를 넘어선 표현의 확장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삼의당의 애정시에는 부인만의 일방적 표현이 아니라 남편의 아내에 대한 애정 표현 등도 드러나는데, 이것은 당대 사대부 부부의 편견을 깨는 문학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김삼의당, 이월영 역주, 『삼의당 김부인 유고』, 신하출판사, 2004.

『詩話叢林』.

허경진 옮김, 『三宜堂 金氏 詩選』.

許筠, 『惺所覆瓿稿』.

『孝敬』.

2. 단행본

김경숙, 「자하 신위의 아내와 딸에 대한 인식」, 『우리 한문학과 일상문화』, 소명출판, 2007, 38쪽.

김남이, 「부부의 인연, 사우의길」, 『우리 한문학과 일상문화』, 소명출판, 2007, 63~95쪽.

김명희·박현숙, 『조선시대 여성 한문학』, 이회, 2005, 15쪽.

김명희 외, 『문학으로 읽는 옛 여성들의 삶』, 이회, 2005, 102쪽.

_____, 『조선시대 여성문학과 사상』, 이회, 2003, 190쪽.

김석희, 「시집살이 서사를 통해 본 향촌사족층 문학의 여성형상」, 『한국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2007, 222~228쪽.

박영민, 「18세기 한시에 나타난 여성정감의 미적 특질 -李安中을 중심으로-」, 『한국한문 학과미학』, 태학사, 210쪽.

안대회, 『한국 한시의 분석과 시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년, 246쪽.

안동교 외 번역, 『국역덕봉집』,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심미안), 2012, 116쪽.

이화한문학연구회, 『우리 한문학과 일상문화』, 소명출판, 2007, 39쪽.

정창권, 『조선의 부부에게 사랑법을 묻다』, 푸른역사, 2015, 242쪽.

韓元震, <事家長章第三>,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2, 보고서, 2010, 31쪽.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과 미학』, 태학사, 2003, 210쪽.

3. 논문

金順天, 「朝鮮後期 女性 知識人의 主體 認識 樣相 -女性性的 視覺을 中心으로-」, 단국대 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1쪽.

박무영, 「여성적 말하기와 여성 한시의 전략」, 『여성문학 연구』 제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 1999, 24쪽.
- _____, 「19세기 향촌사족의 여성형상: ‘김삼의당(1)’, 『고전문학연구』 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229~236쪽.
- _____, 「여성시문집의 간행과 19세기 경화사족의 욕망 -정일당유고의 간행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3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393~394쪽.
- 안대회, 「18세기 여성화자시 창작의 활성화와 그 문화사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 한국고전여성학회, 2002, 129쪽.
- 安姪榮, 「18·19世紀 士大夫女性 漢詩 研究 -浩然齋 金氏·令壽閣 徐氏·三宜堂 金氏의 작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1쪽.
- 이종묵, 「愛情漢詩의 전통과 美學», 『국문학연구』 제5호, 국문학회, 2001, 242쪽.
- 정수미, 「조선시대 제망실문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13집, 동양한문학회, 1999, 176쪽.
- 최상은, 「화전가를 통해 본 18·19세기 남녀의 정서와 의식지향 -은일가사와의 비교를 곁들여-, 『반교어문연구』 31집, 반교어문학회, 2011, 149쪽.
- 한성금, 「16세기 사족녀의 한시에 나타난 사유와 표현양상», 『한국언어문학』 제95집, 한국언어문학회, 2015, 296쪽.

| Abstract |

Expressing Aspects of Love Poetry by High Official's Wife In the Late Joseon Period and Its Meaning in Literature History

— Focus on Love Poetry by Kim Samouidang —

Han, Seong-geum

This study speculated on expressing aspects of love poetry by Kim Samouidang, a high official's wife in the late Joseon period and its meaning in literature history. It was thought that she had high sense of self-esteem and could express true feeling as a woman in her poetry unlike other women from noble family.

Kim Samouidang's poetry was based on active communication with her husband. They respected and sympathized with each other. She never complained of financial difficulty in the household as the couple gave a more focus on each other's appreciation and sympathy rather than making his family prosperous and supporting her husband and family members. Also, they accepted and respected each other through intelligent conversation. They had debates when each of them believed his or her opinion was right and they encouraged each other even when they were depressed. They felt emotional while seeing natural scenery in front of the house and communicated each other on it even though they were separated in distance.

Samouidang's love poetry was characterized by questions and answers on norms and emotional feeling. She tried to think within Confucian regulations as a high official's wife, which was expressed in her regulation poetry. However, she felt sorry and missed her husband as she was separated from her husband even though her poetry was normative and expressed such feeling honestly in her poetry. Her poetry had meaning in that she expressed her love honestly though she was a high official's wife. Also she showed love with her husband in Soochang poetry and letters sent to her husband, which broke prejudice in the late Joseon period.

Key words : love poetry, norm and emotional feeling, intelligent conversation, high official's wife, active expression of love, self-esteem

